

### 창원시 녹색사업소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

경남 창원시는 환경과 민원관련 부서를 늘리고 지원부서를 줄이는 등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국 단위인 녹색도시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산하에 공원관리과, 생태보전과를 두기로 하는 등 본청 직제를 6국 24과 106담당으로 개편기로 했다.

시사업소는 총 7개 사업소 4과 13담당으로 바뀌어 시 전체적으로 서기관 1명과 과장 2명, 계장 13명의 인사발생 요인이 생겼다.

###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발족

환경부는 1월 13일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 및 자동차 전문가 15명으로 경유차환경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유차환경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에너지 가격체계, 연료 품질, 레저형차량(RV) 및 트럭 등 제작차 기준 강화, 경유승용차 배출허용 기준 조정 문제에 관한 민관 협의안을 마련하게 된다.

### 환경인증 기준 강화

환경부는 선진국의 비관세 무역장벽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략

수출 제품군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분류체계를 기존 82개에서 7개로 간략하게 재정비하고 휴대전화 등 6개 제품을 환경마크 취득 대상에 추가했으며 국내외의 규제 및 동향을 23개 제품 인증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제품의 해외진출시 선진국의 무역차별화 조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대구시, 대기환경 개선 추진

대구시는 올해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대구시에 따르면 국제섬유박람회(3월)와 하계U대회(8월)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도 개선대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지난해 아황산가스가 0.006ppm(기준치 0.02ppm), 미세먼지 70 $\mu$ g/m<sup>3</sup>(기준치 70 $\mu$ g/m<sup>3</sup>), 오존 0.018ppm(기준치 0.06ppm), 이산화질소 0.023ppm(기준치 0.05ppm) 등으로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극심한 황사 발생 등으로 2000년 63 $\mu$ g/m<sup>3</sup>, 2001년 66 $\mu$ g/m<sup>3</sup>에 비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배출업소와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진공

청소차량 운행, 고압살수차 운행 등으로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 환경부 인사

#### ■ 4-6급(1.2)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환경사무관 문용호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 근무를 명함

▷국립환경연구원 행정사무관 노희동 기획관리실 정보화(담) 근무를 명함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 환경서기관 천승규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 근무를 명함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시설서기관 김동진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 근무를 명함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행정사무관 이우익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근무를 명함

▷환경부 행정사무관 최형욱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행정사무관 김진식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근무를 명함

▷환경정책국 민간환경협력과 환경사무관 정선화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근무를 명함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주사 이동진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근무를 명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건서기관 최수근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근무를 명함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 환경

사무관 서인원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근무를 명함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토목사무관 홍정섭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근무를 명함

▷경인지방환경청 환경사무관 류성국 수질보전국 산업폐수와 근무를 명함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환경사무관 홍동곤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근무를 명함

▷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 행정사무관 윤용로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근무를 명함

▷한강유역환경청 행정사무관 강선중, 기획관리실 정보화(담) 환경사무관 김고응 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 근무를 명함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환경주사 임성재, 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 환경주사 이승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근무를 명함

▷한강유역환경청 행정사무관 김태환, 경인지방환경청 보건사무관 장명규, 수질보전국 산업폐수와 화공주사 구자용 국립환경연구원 근무를 명함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사무관 최문규,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행정주사 조규수,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행정주사 홍성균 한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환경부 환경사무관 김영진,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환경주사 백운봉 낙동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 행정주사

김영기 금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금강유역환경청 토목사무관 엄판

중 영산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사무관 박웅,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환경주사 김홍렬 경인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수질보전국 산업폐수와 화공사무관 남선광, 자연보전국 자연생태과 행정주사 김용철 원주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 6급승진(12.30)

▷총무과 행정주사보 이상준, 한강유역환경청 행정주사보 정준상 행정주사에 임함.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주사보 김병주 환경주사에 임함.

▷금강유역환경청 전산주사보 이재동 전산주사에 임함.

■ 2급승진(12.31)

▷환경정책국장 공업부이사관 윤성규 공업이사관에 임함

▷수질보전국장 부이사관 문정호, 국제협력관 부이사관 김상일,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장 부이사관 선우영준, 금강유역환경청장 부이사관 류철상 이사관에 임함

▷환경부 시설이사관 정진성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친환경개발사업 사례집 발간

한국토지공사는 창사이래 조성한 각종 개발사업 중 친환경적인 사례를 묶어 “자연, 도시, 그리고 사람”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토지공사가 지난 27년 동안 시행한 택지나 산업단지의 친환경 개발이 공원과 숲, 물, 공원과 테마, 공원과 생태환경, 녹지, 문화재 등 10개부문, 237개 사례로 분류돼 사진, 도면, 설명자료 등과 함께 담겨져 있다.

경주 안압지 등을 본뜬 분당중앙공원 분당지, 용인구갈지구 수령 450년 향나무, 일산호수공원 자연관찰공간, 용인수지지구 근린공원 생태연못, 김해장유지구 아랫덕정 유적지 등이 그 예.

울산환경동향 창간호 발간

울산의 환경관련 모든 정보를 집대성한 계간지 “울산환경동향” 창간호가 발간됐다.

울산시는 시민의 환경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시 산하 여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역환경정보를 담은 계간지 “울산환경동향”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울산환경동향은 모두 200부로 학교, 언론, 시민환경단체, 환경부, 전국 시·도 등에 배부돼 울산환경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창간호 주요내용은 기상통계를 비

롯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관리, 지역환경소식, 국·내외 환경동향, 환경친화기업을 찾아서(기업탐방), 토막환경상식 및 부록 등으로 꾸며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소년환경상 선정**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2월 31일 평소 환경보전 활동에 모범을 보인 12명의 청소년 환경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했다.

청소년 환경상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실천적인 환경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올해 처음 제정했다.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에는 광주 충장중 1년 설요한군이, 우수상에는 순천이수초 6년 정대석·고려고 2년 위기웅군과 신성여중 3년 강소연양 등 3명이, 장려상에는 매곡초 5년 임현태·제주중 3년 강성근·광주효덕초 6년 임영지·광주고 1년 이재성·주암종합고 2년 오삼록·광주동운초 6년 김지수·일신초 6년 최원진·완도중앙초 4년 이

정주 등 8명이 선정됐다. 특히 설군은 동네 주변 튀김집 등의 폐식용유를 유상으로 수거해 무공해 비누를 제조, 동네 주민들과 노인당에 나눠주는가 하면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등 환경보전과오염 감시 및 예방활동에 솔선 수범한 점이 인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청소년 환경상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광주·전남 및 제주지역 각급 학교장 및 민간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아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낙동강환경사업단 신설**

부산시는 낙동강 둔치 개발을 전담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 신설되는 사업단은 낙동강 둔치 4개 지구 3백31만평과 서낙동강 하천을 생태공원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맡게 된다.

이 같은 조직 설치로 부산시의 인력 76명이 증원돼 아시안게임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 흡수 등 과원 인력

처리에 숨통을 트게 됐다.

**소니코리아, 폐CD 재활용 캠페인 전개**

소니코리아(www.sony.co.kr 대표 이명우)는 최근 농촌에서 폐CD를 농기계 후면 반사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CD 2만5000장을 전남 해남경찰서(서장 박재현)에 전달했다. 이는 경운기의 후미등이 고장나도 농민들이 제대로 고칠 수 없어 야간에 사고가 빈발하자 CD의 높은 반사효과에 착안해 손쉽게 농기계 후미등으로 활용하자는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소니 측은 이와 함께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번에 전달한 폐CD가 깨지거나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다시 회수해 처리키로 했다.

소니코리아 환경경영사무국(GM) 관계자는 “앞으로 유용한 활용 목적으로 폐CD를 요청한다면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